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한국의 사회동향 2021

Korean Social Trends 2021

http://sri.kostat.go.kr

통계청
통계개발원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변화와 생활

김주현 (충남대학교)

- 한국과 일본에서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더 크지만, 최근의 증가 속도는 한국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돌봄은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초고령자의 세대 구성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배우자 및 혈연관계자와 동거하는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비혈연가구의 비중이 43.9%로 가장 높았다. 일본에서도 비혈연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한국처럼 급격하지는 않다.
- 과거에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100세 이상 초고령자를 주로 돌봤지만, 2015년에는 유료수발자가 4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건강상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난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저출산 경향이 맞물려서 진행된다.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2000년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평균 기대수명은 1990년 71.7세에서 2000년 76.0세, 2019년 83.3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0년 전체 인구의 15.7%이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60년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서구 선진국들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7% → 20%)하는데 각각 154년, 79년, 75년이 소요되었다. 일본은 그 소요기간이 36년으로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5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인구 집단을 65세 이상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노인집단 내에서도 연령대에 따른 특성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0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1990년 첫 조사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그 규모는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변화와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글은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규모 변화를 개관하고 가족, 돌봄, 주거, 활동, 건강 등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살펴본다. 아울러 한국에 앞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세계 최고의 고령화

수준에 도달한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와 그 규모 및 기본적 특징을 비교한다. 또한,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가장 주요한 변인인 성별, 돌봄,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초고령인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시사점을 찾고자 시도한다.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규모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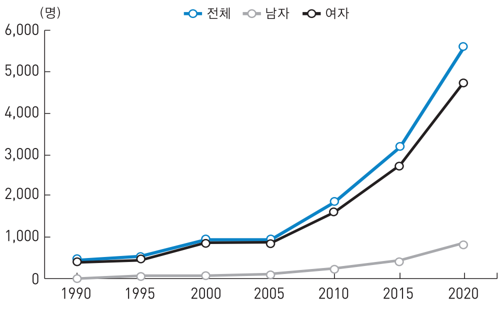
[그림 I-21]은 초고령인구의 규모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20년 100세 이상의 초고령인구는 5,581명으로 1990년 459명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0년과 2010년에 비해서도 각각 6배와 3배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0세 이상의 초고령인구는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하게 많으며, 증가속도 또한 빠르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여자 4,731명, 남자 850명으로 여자가 남자의 5.6배였다. 그러나 100세 이상 인구에서 여자의 비중은 1995년 91.5%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여자인구의 비중은 2010년과 2020년에 각각 86.1%와 84.8%로 집계되었다.

[그림 I-22]에 제시된 바, 일본의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증가 추세는 [그림 I-21]과 유사한 변화양상을 나타낸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100세 이상의 초고령인구는 1970년 339명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3,625명, 2010년 4만 7,756명, 2020년 8만 6,51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초고령인구에서 여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남녀인구의 비중이 각각 11.6%와 88.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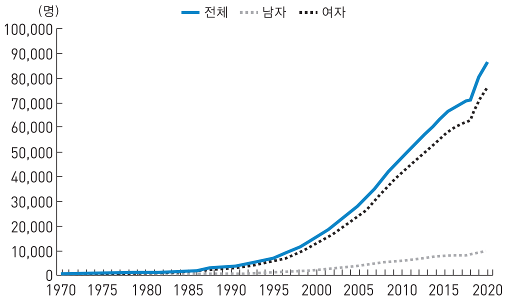
일본의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규모는 2020년 현재 한국의 15.5배에 달한다. 전체 인구에서 100세

[그림 I-21]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 1990-2020



주: 1) 내국인 기준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그림 I-22] 일본의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 197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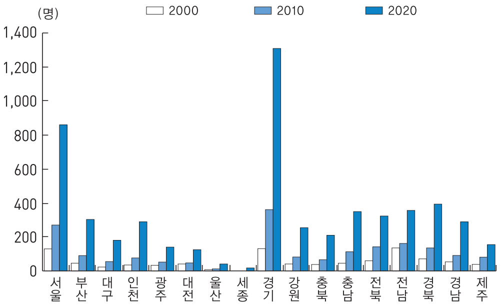


주: 1) 주민기본대장 인구 기준, 해외 재류 일본인 제외.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100세 노인 표창 대상자는 43,633명」, 보도자료, 2021.9.14.

이상의 초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일본(0.06%)이 한국(0.01%)보다 높다. 단지, 최근 10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23]은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지역별 분포와 증가추세를 보여준다. 우선, 경기도와 서울이 초고령인구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크고, 증가 속도 역시 두드러지게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고령인구의 규모는 2020년 현재 경기도가 1,30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858명), 경상북도(393명), 전라남도(354명) 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서울, 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고령자가 2,454명으로 전체의 44.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초고령자 수를 계산해보면, 제주도가 23.8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20.3명), 강원도(17.0명) 순이다.

[그림 I-23] 시도별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 2000-2020



주: 1) 내국인 기준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100세 이상 초고령자 가족 및 돌봄

한국과 일본의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가족생활은 혼인상태 및 세대 구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표 I-5〉는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혼인상태를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 모두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는 유배우자와 이혼자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미혼자의 비중 역시 2005년 이후 마찬가지 추세가 관찰된다. 그러나 미혼자와 이혼자의 절대 규모는 아직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다.

일본 초고령자의 혼인상태는 한국과 대체로 유사한 구성과 변화의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표 I-5〉 한국과 일본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혼인상태, 1995-2015

(%)

	사별	유배우	미혼	이혼	미상
한국					
1995	98.0	1.6	0.4	0.0	0.0
2000	94.0	2.0	2.2	0.1	1.6
2005	97.1	2.2	0.5	0.2	0.0
2010	96.8	2.4	0.6	0.2	0.0
2015	90.9	3.4	0.7	0.3	4.7
일본					
1995	93.1	3.5	1.1	1.4	0.9
2000	91.5	2.9	1.3	1.4	2.9
2005	90.8	3.5	1.5	1.2	2.9
2010	86.2	3.6	1.8	1.3	7.1
2015	87.1	4.7	2.1	1.4	4.7

주: 1) 내국인 기준.
2) 일본 자료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 1995, 2000 ;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집계결과」, 보도자료, 2006.6, 2011.6, 2016.6.
Statistics of Japan, e-Stat(https://www.e-stat.go.jp/statistics/00200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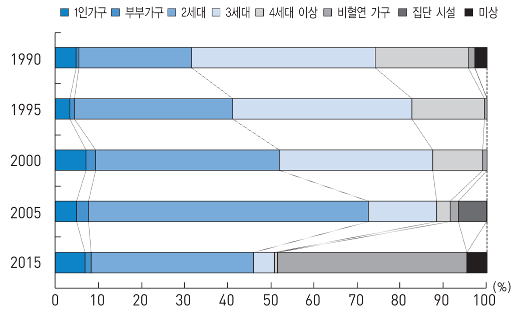
유배우자, 미혼자 및 이혼자의 비중이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일본의 초고령자 규모가 한국보다 월등하게 큰 것을 감안하면, 혼인상태별 초고령자의 규모의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예를 들어, 2015년 현재 일본의 100세 이상 미혼자는 1,30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한국 초고령 미혼자 규모의 60배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그림 I-24]에서 한국의 100세 이상 초고령자 세대구성의 변화를 보면, 1995년까지는 성인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2,3,4세대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 2세대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아졌으며, 2005년 이후에는 비혈연가구가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그 결과 2015년의 세대구성을 보면,비혈연가구가 43.9%로 가장 많고, 2세대 가구가 37.6%로 두 번째로 많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고령자 돌봄이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에는 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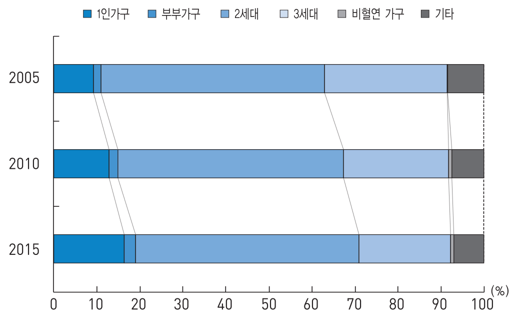
그런데 [그림 I-25]에서 일본의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세대구성을 살펴보면, 한국과는 다른 양상이 관찰된다. 우선, 성인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2세대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2015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초고령자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가구가 많아지고, 3세대 가구의 비중은 점차 낮아진다. 비록 비혈연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 절대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어서 한국과 대비된다.

[그림 I-24]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세대구성, 1990-2015



주: 1) 내국인 기준임.
2) 2010년의 경우 100세 이상 인구의 세대구성이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2000;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보도자료, 2006.6, 2011.6, 2016.6.

[그림 I-25] 일본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세대구성,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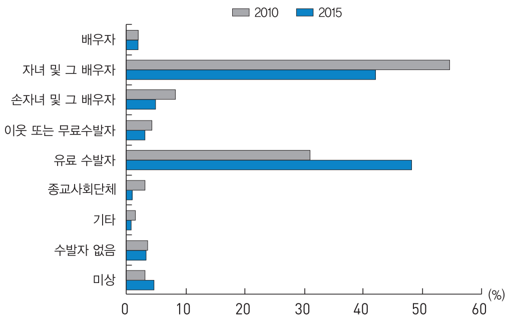


주: 1) 내국인 기준임. 일본 인구센서스 자료 활용함.
출처: Statistics of Japan, e-Stat
(https://www.e-stat.go.jp/statistics/00200521).

[그림 I-26]은 한국의 100세 이상 초고령자를 돌보는 주수발자의 구성을 보여준다. 유료수발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2005년 조사

자료는 이 그림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초고령자에 대한 돌봄은 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경향은 2005년 고령자조사에서 확인되며, 이는 2010년 조사자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림 I-26]을 보면, 2010년에는 유료수발자가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발자로 나타난다. 그리고 2015년에는 초고령자를 돌보는 유료수발자의 비중이 48.2%로 가장 높았다.

[그림 I-26]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주수발자, 2010, 2015



주: 1) 내국인 기준임.
2) 복수응답 결과임.
출처: 통계청,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보도자료, 2011.6, 2016.6.

그런데 주수발자의 구성은 초고령자의 성별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I-6〉을 보면, 남녀 초고령자 모두 2010년에 이르기까지 과반수가 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돌봄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유료수발자가 많았다. 배우자에 의한 돌봄은 초고령자의 성별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남자 초고령자의 경우에는 14.7%가 배우자의 돌봄을 받는 반면, 여자 초고령자는 배우자의 돌봄을 받는 경우가 미미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5년에는 유료수발자의 돌봄을 받는 여자 초고령자가 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돌봄을 받는 여자 초고령자보다 많았다.

〈표 I-6〉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성별 주수발자, 2010, 2015

(%)

	2010		201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배우자	14.7	0.0	12.6	0.3
자녀 및 그 배우자	51.7	55.2	46.3	41.5
손자녀 및 그 배우자	6.2	8.6	2.6	5.3
이웃 또는 무료수발자	3.8	4.4	3.3	3.1
유료 수발자	23.7	32.2	33.9	50.5
종교사회단체	0.9	3.6	0.9	1.1
기타	2.4	1.4	0.7	0.8
수발자 없음	7.6	3.0	5.4	3.0
미상	5.2	2.9	6.5	4.4

주: 1) 내국인 기준임.
2) 복수응답 결과임.
출처: 통계청,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보도자료, 2011.6, 20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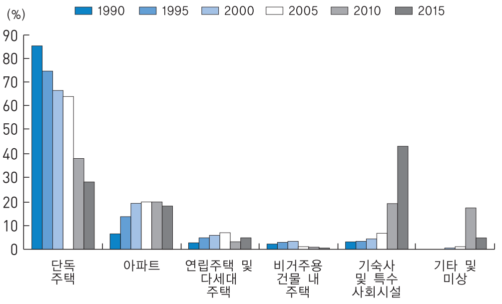
초고령자의 성별에 주수발자의 구성이 달라지는 양상은 일본에서도 관찰된다. 일본건강·체력만들기사업재단(Japan Health Promotion & Fitness Foundation)에서 2000년 100세 이상 초고령자 1,9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초고령자의 경우 자녀의 배우자(44.9%)가 주수발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녀(36.2%)가 그 다음이었다. 한편, 여자 초고령

자의 주수발자는 요양원 직원(33.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의 배우자(30.8%), 자녀(29.2%) 순이었다.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주거 및 생활

초고령자에 대한 돌봄은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와 점유 형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초고령자는 대부분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I-27]에서 보는 것처럼, 1990년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85.4%가 단독주택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초고령자의 비중이 64.1%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2005년 조사부터 노인복지시설이 거처 종류에 포함되면서 단독주택 거주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초고령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단독주택 거주자의 비중이 28.4%로 낮아지고,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비중이 43.1%로 가장 높았다.

[그림 I-27]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거처 종류, 1990-2015



주: 1) 내국인 기준임.
2) 2005년부터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에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2000;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보도자료, 2006.6, 2011.6, 2016.6.

주택의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초고령자들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자기 집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42.2%로 집계되었다. 이를 세분하면 동지역 39.5%, 읍면지역 47.1%이었다.

초고령자의 종교생활, 시간활용, 대인관계, 생활만족도 등의 일상생활은 통계청의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자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우선, 2015년 조사에서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55.2%가 종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구분하면, 여자 56.9%, 남자 44.9%로 여자의 종교활동 참여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표 I-7〉을 보면, 일상적 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초고령자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며, 2015년에 50.7%로 집계되었다. 초고령자들의 일상적 활동은 주로 낮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상적 활동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38.5%)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사교 활동(8.8%), 노인정 및 마을회관(6.4%), 집안일(5.3%)의 순이었다.

〈표 I-7〉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시간활용,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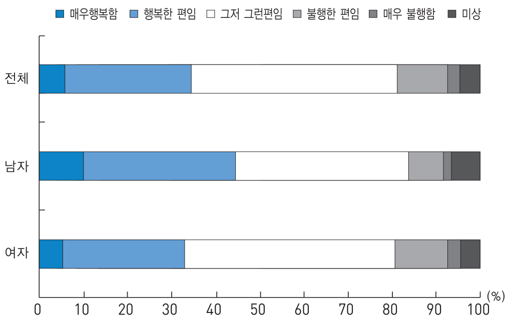
(%)

	2005	2010	2015
활동이 있음	59.2	53.1	50.7
집안일	7.2	5.0	5.3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29.8	35.1	38.5
사교	-	6.6	8.8
노인정, 마을회관	5.9	6.7	6.4
종교활동	-	5.4	-
텃밭 등 가벼운 일	0.6	5.8	-
기타	14.7	6.9	12.5
활동 없음	40.8	46.9	44.6
미상	1.0	-	4.7

주: 1) 2005년의 경우 '텃밭 등 가벼운 일'은 '수입이 있는 일'로 조사되었고, '활동 없음'은 '누워서 지냄'으로 조사됨.
출처: 통계청,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원자료, 2005, 2010, 2015.

[그림 I-28]은 2015년 조사에서 측정한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생활만족도를 성별로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현재의 삶과 생활에 대해 행복하다고 응답한 초고령자가 34.4%이었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자 46.6%, 불행하다는 응답자가 14.3%이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자의

[그림 I-28]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성별 생활만족도, 2015



출처: 통계청,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보도자료, 2016.6.

생활만족도가 대체로 여자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즉, 행복하다는 응답자가 남자는 44.4%인데 비해 여자는 32.9%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불행하다는 응답자가 남녀 각각 9.8%와 15.0%로 나타났다.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건강 상태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측정하는 방법이 흔히 활용된다. 이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신을 돌보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일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개인의 관리 활동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의 측정을 통해 초기 단계의 질병 평가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기도 한다.

〈표 I-8〉에는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세수/양치질/머리감기, 식사, 걷기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수행 능력이 성별로 제시되어 있다. 초고령자들은 혼자서 가능한 활동으로 '식사'하기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걷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0년의 경우, 혼자서 식사가 가능한 초고령자가 35.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혼자 세수/양치질/머리감기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초고령자가 21.1%였

다. 혼자서 걷기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초고령자는 17.0%로 가장 낮았다. 한편, 2015년 자료에서는 초고령자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자의 46.4%가 식사하기를 어려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혼자서 걷기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초고령자의 비중은 24.8%였다. 그리고 초고령자의 29.4%가 세수/양치질/머리감기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초고령자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혼자서 식사하기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남자 초고령자는 59.8%로 여자 초고령자의 44.4%보다 현저하게 높다. 혼자서 걷기가 가능한 초고령자는 남녀 각각 0.0%와 22.5%로 그 격차가 더욱

〈표 I-8〉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성별 건강상태(ADL), 2010, 2015

(%)

	2010			2015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세수/양치질/머리감기						
상	30.8	19.6	21.1	45.5	26.9	29.4
중	29.4	25.6	26.1	23.0	20.3	20.6
하	39.8	54.8	52.8	31.5	52.8	50.0
식사						
상	44.3	34.2	35.6	59.8	44.4	46.4
중	30.8	33.5	33.2	19.0	19.5	19.4
하	24.9	32.2	31.2	21.3	36.2	34.2
걷기						
상	27.9	15.3	17.0	40.0	22.5	24.8
중	28.9	24.9	25.4	21.8	17.5	18.1
하	43.3	59.8	57.6	38.3	60.0	57.1

주: 1) 해당 일상수행에 대해 '상'은 '할 수 있음', '중'은 '약간 어려움', '하'는 '매우 어려움/전혀 할 수 없음'을 의미함.
2) '미상'을 제외하고 분석함.
출처: 통계청,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원자료, 2010, 2015.

두드러진다. 혼자서 세수/양치질/머리감기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초고령자는 남자 45.5%, 여자 26.9%로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앞으로 초고령자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자 초고령자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초고령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상태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표 I-9〉에서 보는 것처럼, 배우자가 있는 초고령자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이러한 경향은 2010년보다 2015년에 더욱 두드러진다. 유배우 초고령자는 ADL 영역 중 식사하기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사

〈표 I-9〉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혼인상태별 건강상태(ADL), 2010, 20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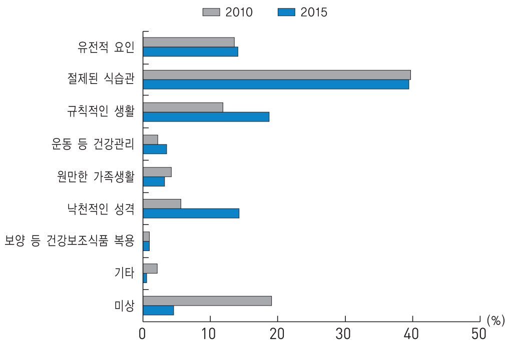
	2010				2015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세수/양치질/머리감기								
상	16.7	47.5	20.4	33.3	22.7	56.5	28.5	0.0
중	0.0	22.5	26.4	0.0	18.2	18.5	20.7	20.0
하	83.3	30.0	53.3	66.7	59.1	25.0	50.7	80.0
식사								
상	16.7	62.5	34.9	33.3	40.9	67.6	45.7	30.0
중	66.7	15.0	33.5	33.3	18.2	14.8	19.6	30.0
하	16.7	22.5	31.5	33.3	40.9	17.6	34.7	40.0
걷기								
상	16.7	42.5	16.2	33.3	18.2	43.5	24.3	0.0
중	33.3	25.0	25.5	0.0	9.1	23.1	17.9	20.0
하	50.0	32.5	58.3	66.7	72.7	33.3	57.8	80.0

주: 1) 해당 일상수행에 대해 '상'은 '할 수 있음', '중'은 '약간 어려움', '하'는 '매우 어려움/전혀 할 수 없음'을 의미함.
2) '미상'을 제외하고 분석함.
출처: 통계청,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원자료, 2010, 2015.

별자, 이혼자 및 미혼자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예를 들어, 2015년 유배우 초고령자의 67.6%가 혼자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사별자, 이혼자 및 미혼자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식사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30–40% 수준에 불과하였다. 유배우 초고령자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은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또는 걷기의 가능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그림 I–29]는 100세 이상 초고령자들의 장수가 주로 식습관, 유전적 요인과 규칙적 생활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수의 사유를 절제

[그림 I–29]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장수 사유, 2010, 2015



출처: 통계청,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원자료, 2010, 2015.

된 식습관이라고 응답한 초고령자가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39.7%와 39.4%로 가장 높았다. 장수가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응답한 초고령자는 2010년과 2015년 모두 13–14% 수준이었다. 장수의 사유를 낙천적 성격이라고 응답한 초고령자도 2010년 5.8%에서 2015년 14.4%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규칙적 생활이라고 응답한 초고령자의 비중도 2010년 11.9%에서 2015년 18.8%로 높아졌다.

앞으로 의료기술의 발달과 아울러 고령자들의 적극적인 건강추구행위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고령화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67년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1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100세 이상의 초고령인구가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 가족 구조와 돌봄 양상, 주거와 생활 환경, 건강 상태와 행위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초고령인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